

## ‘조롱꽃’의 ‘꽃’에 대하여

金完嶺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청산별곡의 끝에 ‘조롱꽃’이란 말이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꽃 누르기 밋와  
잡스와니 내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양주동 선생의 『여요전주』(329면)는 ‘조롱꽃’ ‘조롱’은 ‘적은 박’〔瓢  
‘꽃[花]’라는 간단한 주석을 붙였지만, 다음 면에서 좀더 자세한 부연을 읽을  
수 있다.

以上 ‘조롱꽃누룩’은 ‘瓠花麴’, 아마 ‘조롱꽃’은 ‘누룩’의 모양을 形容

하는 말이겠다. 누룩은 現今에도 四角形에 中央을 오목하게 만들거니와 麗代엔 일부러 雅致있게 ‘조롱꽃’ 모양으로 만듬이 流行하여 ‘조롱꽃누룩’이란 慣用語가 있었음이 아닐까. 혹은 잘 醱酵된 누룩의 中心이 박꽃같이 희게 피었음을 形容함인가. (\*표기는 현대식으로 조정하였다.)

지현영 선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어, 양 선생의 이 견해는 지금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현영 선생의 견해는 ‘조롱꽃’을 ‘종고래기’(바가지의 小形인 것)이라 하며 그 줄을 ‘종고래기에 누룩을 메워서’라 읽고 있어 쉽게 따르기는 어렵다.([『향가여요신석』, 123~124])

그러나 유창돈 선생의 『이조어사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표제어 ‘조롱꽃’에는 설명 없이 청산별곡의 예문만이 실려 있다. 설명이 있을 자리에는 적당한 공백만이 남겨져 있다. 설명이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장차 납득이 가는 해석이 마련될 때를 위한 예비 공간이다. 유 선생은 양 선생의 해석을 석연치 않게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조롱꽃’에 대한 양 선생의 문면이 확신에 찬 표현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더욱이 논리가 한 줄기로 몰리지 않고 두 갈래로 여유를 두려 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그런데 양 선생이 그린 두 그림 중의 어느 것도 지금의 필자가 간직한 영상에는,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 생각해 보아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필자의 일과의 중요한 일부는 누룩 공장의 작업 광경을 살피고 다니는 일이었다.<sup>1)</sup> 지금도 누룩 모양 누룩 향기는 그림

1) 필자가 두 살에서 여섯 살까지 약 4년을 산, 역앞 동네에는 민가가 거의 없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다. 우리집 양조장의 서기와 인부들, 그리고 바로 이웃 곡자회사(麴子會社)의 직원과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내 말벗들이었다. 큰 길 건너에는 꽤 큰 고가가 있고 시령의 능소화가 아름다웠으나, 집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었다. 능소화 탓이라 했다. 곡자회사를 지나면, 공업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은 내가 혼자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기만 한 것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양 선생이 누룩을 네모나다고 한 것은 디더내는 틀의 차이에 따른 것이고, 흔히는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지며, 가운데가 들어가는 것은 부인들이 발로 디더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집에서 만들 때에는 거꾸로 가운데가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꽃모양, 그것도 순백색의 박꽃 모양을 연상해 낸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면 둘째 가능성, 즉 잘 발효된 누룩의 중심이 박꽃 같이 희게 피었다는 것은 어떠한가. 많은 누룩을 보았어도 그렇게 희한한 누룩은 본 일이 없다. 누룩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담황색이다. 거기에 균사의 작용으로 가는 색선들이 단속적으로 얼마간 들고나는데, 적황(赤黃)과 황청(黃靑)이 특징적이다. 박꽃에 어떤 변종이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빛의 박꽃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붉은 빛이 가미된 황색을 한자로는 국황(麴黃)이라 하거니와, 황색이 가미된 청색은 국진(麴塵)이라 한다.

## 2.

적어도 양주동 선생의 상상에 의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박꽃이 누룩의 수식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조롱곳’의 ‘곳’에 대하여 ‘꽃’이라는 의미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볼 가능성은 없는가를 생각한다. 그런데 ‘꽃’을 의미하는 ‘곳’ 이외에 몇개의 ‘곳’이 고어사전의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별로 탐탁해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곳’(<곤), ‘곳’(<곳, 串)등이 고작인데 앞의 것은 ‘장소’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고, 뒤의 것은 ‘꼬챙이’의 뜻을 가지는 것과 특정 지형을 나타내는 ‘串·岬’의 뜻으로 ‘甲串, 突山串’등의 지명에 쓰이는 것을 본다.<sup>2)</sup> 첫째 의미의 ‘곳’이라 할 때는 ‘감곳’의 용례와 같이 감의 명산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므로, ‘조롱곳’은 조롱박의 명산지가 되어야겠는데 조롱박이 명산지 운운할 만큼의

2) 후자의 뜻으로 쓰인 ‘곳, 곳’에 대한 고어사전들에서의 설명은 미흡한 데가 있다.

중요한 물산인가도 문제겠지만 다음의 '누룩'의 수식어로서의 적절성을 수궁하기도 어렵다. 둘째 '곳'에서 '조롱박 꼬챙이'는 전혀 말답지 않으나, 지명의 '조롱곳'은 있을 법도 한 존재다. 그러나 그런 지명의 실재를 알지 못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룩'에 걸리기 위해서는 그 '조롱곳'이 누룩의 특산지 같은 것이 되어야겠는데, 그것도 이 노래의 문맥에 가져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향기' 또는 '냄새'를 뜻하는 '곳'이 남아 있다. 불행히 표제어로는 올라 있지 않지만 이 단어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먼저 유창돈 선생의 『이조어사전』이 '곳답다'와 '곳쌌다'에 대하여 '꽃답다'라고만 풀이해 놓은 데에 놀란다. 그리고는 남광우 선생의 『고어사전』에서 '꽃답다' 다음에 '향기롭다'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간의 안도를 느낀다. 남광우 선생이 '곳답다>꽃답다'라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형태상으로는 현대어의 '꽃답다'가 '곳답다'의 후계자이겠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까지 양자가 동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어의 '꽃답다'는 시각적인 의미를 지닌다. 최근에 나온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해 보자.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가 그 풀이이다. 예문 가운데 박완서의 것을 살펴보자. '그 방구리만 한 계집애는 그의 나이와 함께 그의 마음 속에서 은밀하고 꽃답게 향기롭게 자라났다.'(박완서,

『미망』) '꽃답고'가 '향기롭게'와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기억해 두자.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기 위하여 중세어에 대하여는 자서의 '곳답다' 용례부터 확인해 보기로 한다. 『훈몽자회』에는 '쑤'와 '馨'이 각각 '곳다울 향', '곳다울 형'으로 되어 있다. 『천자문』에는 '馨'자만 보이는데 '곳다울' 또는 '곳싸울'로 적혀 있다. 『신증유합』에는 '곳다울'계의 표기는 없고, 다음 한자들이 '향기'를 보인다: 香, 芳, 薰, 馨, 馥.

다음에는 고어사전들이 든 예문들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자. A는 유창돈, B는 남광우를 나타낸다.

- A. 1. 粳稻의 궂다오몰(粳稻香)(杜초七 34)  
 2. 제여곰 궂다오니라(自馨香(金상四 53)  
 3. 冉冉히 궂답도다(香)(杜초七 2)  
 4. 궂다올 빼를(太平一 14)
- B. 1. A. 1과 동일  
 2. 저근 한오새 궂다온 프를 繡호얏더니(小襦繡芳草)(杜解 8:6)  
 3. 짜히 몰ㄴ니 어득훈디 궂다온 고지 깃기셋도다(地淸樓暗芳)  
 (杜解 9:20)  
 4. 시를 니서 궂다온 낫바늘 드리우고(接縷垂芳餌)(杜解 10:6)  
 『태평광기』의 원문(A.4)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芳時, 芳年’  
 같은 말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곳에서도 현대어로 ‘꽃답다’ 라고 해석할 궂이 없다는 것은 예사로  
 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의 ‘궂답다’의 ‘궂’의 성조가 평성이 아니고, 거성  
 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면, 항상 평성으로 나타나는 ‘궂’의 의미의 ‘궂’  
 과는 다른 명사가 있어 그 뜻이 ‘향기’였을 것을 추정케 하는 것이다. 그렇다  
 면 ‘궂답다’궂답다’의 변화라는 것도 산수적으로 해석될 성질의 것이 아님도  
 깨닫게 된다. ‘향기’를 뜻하는 명사의 소멸과 함께 ‘궂답다’라는 궂풀이 ‘궂’과  
 의 연상 아래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궂답다’로 소생한 것이겠기 때문이다.

‘향기’의 의미의 ‘궂’은 이른바 영파생(零派生)에 의한 형용사 ‘궂다’를 가  
 지고 있었다. 다만 이 파생 과정에는 성조의 변화가 수반되어 형용사 ‘궂다’  
 (향기롭다)의 어간 성조는 평성이다.<sup>3)</sup> 출현례가 많지 않아 기본형 잡기에 고  
 심한듯, 『이조어사전』은 ‘고스’를 표제어로 신고 있는가 하면 『고어사전』은 어간  
 을 ‘고스’로 보며 ‘고스다’로 올려 놓았다. 그러나 중가형(重加形) ‘궂고스’, ‘궂  
 궂훈’, ‘웃고스’, ‘웃궂훈’ 등의 예로 보아 기본형을 ‘궂다’로 보아 좋으리라 생

3) ‘신 → 신다, 품 → 품다, 안 → 안다’ 등의 경우에도 어간의 장음화가 관찰되는 것  
 은 잘 알려진 일이다.

각한다. 이 형용사의 존재 덕분에 우리는 향기의 ‘긔’의 발음이 시옷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로써 ‘긔’의 고행인 ‘긔’(←긔)과는 그 성조와 발음에 걸쳐 이중의 차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향기의 ‘긔’를 “조롱긔에 끌어넣으면 단독으로 쓰인 ‘긔’의 첫 예가 되겠거니와, 그 아래의 ‘누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된다.

‘박 향기’ 또는 ‘조롱 향기’로서의 ‘조롱긔’은 우선 큰 탈이 없을 것이다. 물론 ‘긔’(향기)이라 하고 ‘내’[臭]라 하지 않은 것은 그 냄새에 대한 호의적 대응을 전제로 한다. 필자의 체험적 지식은 박국과 박나물을 먹어 본 정도와 박넝쿨(표주박 포함)을 길러 본 것이 전부인데, 약간의 걱정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처음 대하는 사람이 곧 이끌릴 냄새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몽자회』에서 ‘조롱 호’(瓠)에 대하여 ‘形如菜瓜味甘’이라 한 것을 보면, 식용으로 재배하는 박의 경우에는 그 맛과 함께 향기도 기호할만한 것인지 모른다.

누룩 냄새도 특이한 종류의 냄새로 필자의 경우에는 그윽한 향기로 추억되는 것이지만, 그 추억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기는 기호되는 향기라는 것도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치즈나 젓갈에 비유하여 애주가에게 통하는 향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누룩이 미와’의 ‘밧다’도 미각과 후각에 공용되는 형용사이니까 ‘긔’를 향기로 해석하는 데 일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니와, 술의 다른 호칭으로 한자로는 ‘香糯’ ‘香蟻’가 있고 ‘香醪’에도 ‘쥌’자가 들어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누룩은 술을 상징하여 ‘麴生’, ‘麴君’이 그대로 술을 의미한다는 말로 ‘긔’와 ‘누룩’의 뒤를 받치고자 한다. 확인컨대, 필자의 ‘조롱긔 누르기 미와’에 대한 해석은 ‘조롱향기 누룩이 매워’이다.

### 3.

이렇게 내세운 향기의 ‘긔’를 끌고 올라갈 다른 곳은 없을까. 필자가 향기를 해독하면서 재건한 두 개의 ‘쥌’자가 머리에 떠오른다. 「광수공양가(廣修

供養歌)』 5행과 6행의 첫머리에 ‘手焉과 ‘手良每如’로 두 번 나오는 ‘手’자를 ‘손’이라 읽지 않고 최행귀의 역시(거기에는 ‘좁’자가 두 번 나온다)와 화엄경의 저본 내용을 참조하여 ‘좁’으로 복원시킨 일이 있는데, 이 ‘좁’자를 ‘곳’으로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 ‘좁’자에 대하여는 유혹을 물리치고 자제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좁’은 단순한 ‘향기’(fragrance)가 아니라 ‘香煙·香料’(incense)의 의미의 ‘좁’으로 漢字로 쓰였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하나 다른 유혹은 『삼국사기』에서 김유신의 화랑 무리를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했다는 기록에서 온다. ‘용화’는 미륵불을 수식하는 말이므로 ‘香徒’만을 떼어 놓고 보면, 그것을 풀어 읽었을 때 \*‘곳내’와 같은 어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한편 ‘花郎’도 그런 식으로 풀어 읽을 수 있다면 \*‘꽃랑’과 같은 것이 되어 흔히 말하는 상통, 또는 같은 말의 이양표기들일 것 같은 인상을 준다.(公年十五歲爲花郎 時人洽然服從 號龍華香徒)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필자는 많이 보수적인 태도를 지키고 있다. 어형이 꽤 비슷하다 하지만, 아직은 ‘곳’과 ‘꽃’의 차이가 있고 성조도 달랐겠거니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의 확인도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香徒’와 ‘花郎’ 또는 ‘花郎徒’가 과연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국어연구원의 사전이 양자를 통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내려오는 과정으로 볼 때 과연 동일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의심이 간다. 화랑의 쇠퇴 변형은 광대 무당에 이어진다고 한다.(『훈몽자회』: 覲 : 화랑이 격) 한편 불교적 성격의 ‘香徒’는 ‘향도(鄉徒)’에서 ‘상두꾼’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주변의 상황이 좀더 정리될 때까지 우리의 ‘곳’은 아직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sup>4)</sup>

4) 양주동 선생이 생각한 많은 어원 설명 가운데 ‘화랑’에 관한 것이 있다. ‘花郎’의 본말은 ‘불내라 斷한다 했던 것이 그것인데, ‘風流, 風月’을 관련시키며 ‘꽃부리’(英)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참고로 적어둔다.(『國學研究論攷』, 1962, 184~188쪽)